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10월 5일(월)
통권59호(제2권 제37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기획시리즈

연속기획 『북녘 산책』

연속기획 「북녘 산책」 《 VI-1. 평안북도 》



<지도출처 : nkchosun.com>

평안북도는 북한의 북서부에 있는 도로서, 동부는 자강도, 남부는 평안남도, 서부는 서해에 면하여 있으며 북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접하여 있다. 면적 1만 2,680 km²이고, 인구는 2009년 현재, 277만 7,000명이다.

평안북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행정구역이 여러 번 변경되어 그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렸다. 고조선의 영토였던 평안북도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구장이었고 고구려 패망 이후에는 청천강 이북의 평안도 지방이 패서도, 북계, 서북면 등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 1413년(태종 13년)에 서북면이라 부르던 이 지역은 평양과 안주의 첫 글자를 따 평안도로 불렸으며 1896년 전국을 13개 도로 나눌 때 평안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청천강이북지역이 평안북도로 되고 영변이 도 소재지로 되었다. 도 소재지는 1908년 의주로, 1923년에는 신의주로 옮겼다. 현재 행정구역은 3개의 시 (신의주, 구성, 정주)와 22개의 군(룡천, 신도, 피현, 염주, 철산, 동림, 선천, 광산, 운전, 박천, 영변, 구장, 향산, 운산, 태천, 천마, 의주, 삭주, 대관, 창성, 동창, 벽동)으로 되어 있다. 도 소재지는 신의주이다.

평안북도는 비교적 낮은 산지와 평야가 많은 지역이다. 도 면적에서 산지는 72%, 평야는 28%를 차지한다. 지세는 북동부가 높고 서쪽과 남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평야를 이룬다. 자강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뻗은 피난덕산맥을 비롯하여 묘향산맥, 천마산맥, 문수산맥과 같은 비교적 큰 산줄기들과 여기서 갈라진 작은 산줄기들이 뻗어 있다. 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은 묘향산(1,909m)일대이며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비래봉(1,470m)일대이다. 평균해발높이는 227m이다. 대관분지, 향산분지, 구성분지, 태천분지 등의 분지를 가지고 있고, 해안지대에는 용천벌(360km²), 운전벌(150km²), 박천벌(100km²)등의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 일대는 토양이 비옥하여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

평안북도는 해안선이 길고 나들이 심하고 복잡하며 섬이 많으며 간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658.4km이며 22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으며, 섬이 제일 많은 지역은 철산군으로 70여개의 섬이 있다. 특히 중부 바닷가에는 천마산맥의 지맥들이 바다에 잠겨서 이루어진 철산반도와 가도, 대화도, 대계도, 단도 등의 섬들과 선천만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만들, 그리고 포구들이 있다. 유초도, 황금평과 같은 충적도들이 있으며 화학섬유 원료기지로 만들어진 비단섬(70.746 km²)이 있다.

평안북도는 자연지리적조건이 복잡하므로 기후특성들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 문수산맥의 서쪽에 놓인 바닷가지역은 사철 바다의 영향을 받으므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해양성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산맥들에 의하여 바다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내륙 산간지대에서는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연평균기온은 8.2℃, 1월평균기온은 -9.9℃, 7월평균기온은 23.5℃이다. 연평균강수량은 900-1400mm로 동창군, 운산군 등 청천강, 구룡강, 대동강 상류일대는 한반도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속한다.

평안북도에는 790여 개의 하천이 있는데 대표적인 강으로는 압록강을 비롯해 청천강, 대령강, 구룡강, 삼교천이 있다. 그 가운데서 독립하천은 27개, 5km이상 되는 하천은 260여 개, 밀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은 70여 개다. 도에는 북한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인 수봉호(넓이 298.16km², 둘레 1074.7km)와 만봉호, 대하저수지, 매봉저수지, 봉명저수지, 운전저수지 등 수력발전 및 관개용 저수지들인 50여개의 인공호수들이 있다.

평안북도는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 5대 명산 중 하나인 묘향산, 관서팔경의 하나로 이름난 영변군 약산동대를 비롯해 동림군의 동림폭포, 구장군의 백령대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유물, 유적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국보급 유적 11개를 비롯해 167개의 사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태천군의 용오리산성, 피현군의 웅골산성, 백마산성, 광산군의 능한산성, 영변군의 철웅성, 구성시의 구주성과 구주성의 남문, 의주읍성의 남문, 영변의 청용성남문, 육송정, 천주사, 서운사, 벽동군의 완월루, 태천군의 양화사, 박천군의 심원사, 의주군의 금광사통군정, 향산군에 있는 보현사의 대웅전만세루 등 건물들과 보현사 13층탑·보현사 9층탑, 광산군 원하리의 장경사 5층탑, 영변군 고성리의 5층탑 등이 있다.

평안북도는 수려한 경관과 명승, 고적 뿐 만아니라 많은 독립투사·문학자·체육인을 배출하였다. 그 주요인물로는 문학자로 이광수(李光洙)·김소월(金素月)·김억(金億)·계용묵(桂鎔默) 같은 이들이 있다.

다음호에서는 평안북도의 경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59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나진선봉에서의 대북사업 단상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 최대 규모 '대계도 간석지' 마무리 단계 ----- 3

대북 쌀 지원...찬성 61% vs 반대 33.5% ----- 4

북한, 추수기 앞두고 곡물 가격 오름세 ----- 5

北매체, 첨단기술 회사 광고성 기사 내보내 ----- 6

"북, 지하자원만 팔아도 20년은 버텨" ----- 7

北, 개성공단 업체 실태파악에 적극적 ----- 8

"北, 영변 核단지 평화적 이용방안 제안" ----- 9

北신문 "남북 간 접촉·협력·교류 활성화해야" ----- 10

원자바오 오늘 방북...김정일과 회담 ----- 11

France announces special North Korea mission ----- 12

<北朝鮮>「拘束されぬ」…「核兵器なき世界」国連決議批判 ----- 13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3

추천논문 / 남북 경협에 단기 현안 해결 방안 ----- 14

퀴즈로 풀어가는 北! / ----- 14

이 주의 북한 관련 행사

●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전국학술심포지움

▶주제 :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10:00

▶장소 : 기독교회관

●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0주기 추모 국제학술회의

▶주제 : 아시아 민족독립운동과 건국지도자

▶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10:00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이 주의 칼럼

나진선봉에서의 대북사업 단상

정한기 ((주)매리 대표이사)

한국과 중국에 투자법인 (주)매리를 두고 제3국과 교역사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던 중 2006년 베트남과 러시아에 제2의 해외 사업지 구축을 위한 리서치 작업이 한창이던 무렵, 중국 내수 판매라인을 통해 북한산 농수산물 판매 제의를 받게 되면서 이 분야 북한의 투자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중국과의 접경지역이며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지역을 눈여겨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투자지역 컨디션 체크와 파트너 선정은 투자 사업의 선결 포인트 1순위다. 사업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라진·선봉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북측 파트너와 관료들을 당사 중국 참치 가공공장으로 초청, 대북사업 목표와 비전을 전달했다. 그 후 2년을 지나는 동안, 라진·선봉의 북한 파트너 사무실에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그 옆 동네인 중국 훈춘시에 사무소를 설치, 상하이 법인과 유사한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북-중-한을 잇는 정보 네트워크는 사업 각 단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진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과 관련, 중국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외 인력들을 현장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지역 및 파트너 선정 이후에는 사업구조화가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라진·선봉 사업지역을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가공기지'인 동시에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의 에너지 및 식량자원과 중국 남부 및 한국 경공업 제품과의 교역을 위한 '통과기지'로 개념화 했다. 이는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 경쟁력'과 물류분야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개발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나 피투자자가 상호 업무협력의 밀도를 상호 확인하기도 전에 무리한 투자와 공수표발언 등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양쪽폐해로 귀결되는 시행착오를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기에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예방적 차원의 방어기제는 확실히 갖추려고 했던 것이다. 중국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합자사업 (Joint-Venture Organization)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의 진척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신뢰지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북측과 공유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사업을 단계별로 세부화 했다.

그 다음은 파이낸싱 컨트롤 문제다. 전체 3단계 사업 중 1단계에

서는 임가공 계약대금의 결제를 취하는 것이다. 라진·선봉지역 제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구매, 북한 현지공장으로 보내 생산하고 생산품은 해외로 수출된다. 여기에는 수출완제품 대금이 상하이 무역으로 입금 된 후, 북한 현지에 가공비가 지급되는 과정을 밟는 전형적인 임가공 교역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물류분야에서도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화주와 중국 남부, 한국의 화주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전 경로의 운송비를 선취한 후 각각의 운송이 끝난 후 경로 별로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파이낸싱의 컨트롤 타워의 성격을 국제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사업 단계별 자금투입과 안정적 회수 차원에서, 또한 향후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과 해외펀드 유입, 선진기업의 금융도입을 통한 북한 사업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대북사업이라고 예외일 순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다 많은 북한 동포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겠지만 막힌 게 있으면 뚫고 열린 게 있으면 푸는 노력하는 것이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 아니겠는가. 대북사업을 하면서 말로 다 표현 못할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그리고 본 사업이 본격화하는 현지점의 남북관계는 지난 10년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컬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 또한 나름의 '투자 컨디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현황을 보고, 연구하고 전략과 전술을 계속적으로 새로 짜면서 2009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 덕에 한국이 아닌 해외 자원까지 적극적으로 아우르는 더욱 촘촘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북 우회진출은 남북경협의 지향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해외를 통해 우회하지 않고 북한에 진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보다 많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의 선택기준과 책임의식을 갖고 북한에 진출, 수익을 실현하고, 북한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과 관심'이 함께 아우러진 한국 정부의 정책과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대북사업 기업들이 정부와 자연스레 보조를 맞추는, 글자 그대로 '정책과 현장실천'이 함께할 수 있는 '2인3각'의 모습. 지금 그 모습이 더욱 크게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lofo.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정부가 나서야” 59.2%

-- 9월 28일 한겨레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지난해 7월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남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데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응답자의 42.3%가 “정부가 먼저 남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현대그룹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신변안전보장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16.9%였다. 반면 “북쪽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8.8%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여론이 많은 것이다.

〈북한경제소식〉 공장자동화시스템 도입

-- 9월 28일 연합뉴스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새로 연구 개발한 “생산현장 종합지휘체계”가 최근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에 도입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체계는 “현대적 설비를 이용한 다통로(다채널) 카메라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실시간적으로 감시, 기록하고 검색”할 뿐 아니라 “위험 상황에 대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조종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원료 운반과 가공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로 미뤄 ‘생산현장 종합지휘체계’는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새 체계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지휘와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세부 설비나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옥류관 하면 냉면? 이젠 철갑상어

-- 9월 28일 노컷뉴스

냉면으로 알려진 평양 옥류관이 철갑상어와 메추리 요리 전문식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8일 “평양냉면으로 널리 알려진 옥류관 본관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철갑상어 수족관”이라면서 “중앙동물원에서 관상용인 것으로만 알았던 철갑상어를 옥류관에서 보게 된 것을 놀라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옥류관에서 봉사하는 철갑상어 요리는 현재 40여 가지 정도로 과일즙을 친 철갑상어튀기, 철갑상어냉찜, 철갑상어은지구이, 철갑상어꼬치구이, 철갑상어깨장찬묵 등이라고 설명했다.

옥류관에서는 또 지난 9월초부터 메추리 요리도 봉사를 시작해 메추리 식사실에서는 메추리구이, 메추리찜살소꿘구이, 메추리완자탕 등의 요리와 함께 녹두지짐, 국수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메추리를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7년 1월 김일성 주석이 ‘가금 및 축산부문 일꾼협의회’에서 “메추리가 번식이 빠르고 기르기 쉽고, 알도 많이 낳는다”면서 “닭공장에 메추리직장을 하나씩 꾸릴 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철갑상어는 김정일 위원장이 전국의 양어장을 돌아보고 메기와 칠색송어, 뱀장어와 잉어 등을 많이 기를 데 대하여 지적하고, 그러한 흐름 속에 올해 평안북도 신창양어장에서 세계적으로 마리 수가 적고 가격이 비싼, 철갑상어를 기르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北 최대 규모 '대계도 간석지' 마무리 단계

-- 9월 28일 노컷뉴스

북한 최대 규모인 대계도 간석지 건설공사가 마감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8일 “평안북도 염주군과 철산군의 앞바다에 위치한 다사도에서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 소계도, 철산반도까지 근 35리에 이르는 제방을 건설해 8,800여 정보의 새 땅을 얻는 대계도 간석지 공사는 1, 2, 4호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 공사량이 제일 방대한 3호 방조제 공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대계도 간석지 공사는 지난 1980년 김일성 주석이 30만 정보의 간석지를 새로 개간할 용대한 구상을 했으며, 대계도 간석지 건설도 이때 제시된 목표로 간석지 개간 구상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김정일 위원장도 지난해 6월 13일에 이어 올해 7월 5일에 다시 현지지도를 계기로 대계도 간석지가 북한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공사는 지난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1984년에 1차 방조제공사가 끝나고, 그해 11월 11일 청년 간석지농장, 철산간석지농장이 생겨 이곳에서 13년 동안 벼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7년 8월 27일에 전례없는 해일피해로 875m의 제방이 파괴돼 간석지 제방으로 한 번에 2억 5000만t에 달하는 거대한 량의 바다물이 하루에 두 번씩 밀려들어 제방 전체에 위협을 조성했으나, 경제적 시련을 겪었던 시기에 복구공사가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35리에 달하는 제방을 건설해야 할 대계도 간석지 건설은 서해갑문 건설에 못지 않은 힘든 공사로, 공사가 끝나면 평안북도에서는 곡산군, 정주군, 철산군일대의 간석지 개간공사를 다시 시작해 평안북도에서 1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어제의 오늘] 1984년 북한의 대남 쌀 지원

-- 9월 28일 경향신문

1984년 8월31일부터 4일간 서울·경기·충청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지역이 최악의 홍수사태를 겪었다. 한강이 위험수위인 10.5m를 넘어서면서 한강대교 등 4개의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161개 지역 2만2500가구에서 9만

3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저지대인 강동구 풍납동과 성내동 등은 주택들이 물에 잠기며 '수중고도'가 돼 버렸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휴교령이 내려지는 대형 수재였다. 전국적으로는 사망 및 실종 189명, 이재민 35만1000명, 부상 153명에 피해액은 1333억 원에 달했다.

남한의 수해소식을 전해들은 북한은 9월8일 방송을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쌀 5만석,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t, 의약품 등을 보내겠다고 제의했다. 남측은 이 제의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 '정치공세'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적지 않았다. 국제 적십자사의 구호물자 제공제외조차 사양한 터였고, 한해 전인 83년 10월9일 버마에서 발생한 아웅산 테러의 앙금도 가라앉지 않았던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남제의를 받아들이지기로 했다. 당시 전두환 정부로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개최를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제의가 온 지 6일 만인 9월14일 수락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18일 대한적십자사 이영덕 부총재와 북한적십자사 한웅식 부위원장 등이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가졌다. 북측은 처음에 자동차와 배편으로 서울·속초·부산에 구호물자를 수송하고 북한기자들이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판문점과 인천·북평(동해)항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육·해로를 통해 북한 적십자사의 수해물자가 전달됐고, 남측은 담요, 카세트 라디오·손목시계·양복지 등 18개 품목이 든 선물가방 848개를 북한 대표들에게 답례품으로 증정했다.

북한쌀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33kg에서 66kg까지 분배됐다. 쌀이 좋지 않다고 떡을 해먹는 이들도 있었지만 북녘쌀로 제사를 지내겠다는 실향민들도 있는 등 반응은 다양했다. 북한물자가 인도되던 마지막 날 일간지들은 '위장술책 속케 되면 남북대화 공전한다'는 대공표어를 신기도 했다.

북한 적십자사의 수해물자 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 간 물자교류로 기록됐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구실을 했다. 물자가 인도된 지 8일 만인 10월12일 남측은 신병현 당시 부총리가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화답했다. 이듬해인 85년에는 73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12년 만에 재개됐으며 9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北에 쌀 지원..北매체 잇단 '지원' 보도

-- 9월 28일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에서 조선(北)에 보내는 쌀이 28일 남포항에 도착했다"며 "베트남 정부는 조선에서 자연피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 식량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2007년 10월엔 외교부를 통해 수해를 입은 북한에 5만 달러 상당의 지원물자를 전달하겠다고

고 발표했으며, 2002년 6월에는 5천t의 쌀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엔 러시아가 지원하는 식량이 라선항에 도착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잇따라 '실시간'으로 적극 공개하고 나선 것은 식량지원을 바란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문제와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던 지난 3월엔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으나, 최근 북미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비, 이미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닝 박사가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26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위해 방북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상봉은 북에서 특별히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에 대해 남에서도 상응하는 호의를 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해 쌀이나 비료의 지원을 우회 요청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북 쌀 지원...찬성 61% vs 반대 33.5%

-- 9월 28일 노컷뉴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대북 쌀 지원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민주당), 류근찬(자유선진당)의원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북한 쌀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북 쌀지원에 대해 찬성이 61%, 반대가 3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19~20대:71.0%, 30대:66.5%, 40대:64.0%, 50대 이상:49.7%)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68.0%),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81.9%), 학생(68.8%), 지역별로는 호남(83.8%), 강원(72.3%)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 쌀 지원시 적정물량은 50만톤이상(21.1%), 20만톤(19.3%), 30만톤(15.9%), 10만톤(13.9%), 40만톤(11.6%)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 쌀 지원과 관련해 전제조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인도주의적 지원(36.7%), 남북한 당국자의 합의에 따라 지원(32.4%), 북한 핵폐기 조건으로 지원(29.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쌀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53.2%)는 의견이 북한 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37.7%) 보다 다소 많았다.

北, 황해북도 미루벌 수로 개통

-- 9월 29일 연합뉴스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미루벌에 220km의 '자연흐름식' 관개수로가 개통돼 29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2006년 황북 곡산, 신계, 수안 3개 군에 걸친 총 면적 420km² 미루벌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물을 이용한 자연흐름식 관개수로 공사에 착수했다.

평암저수지 댐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서 김창식 농업상은 준공사를 통해 "황해북도 곡산군 리상리로부터 신계군에 이르는 수 백키 구간에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전력과 양수설비를 쓰지 않고 미루벌의 논밭을 안전하게 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루벌 물길의 완공은 또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생산을 늘리며 이 지대의 긴장한(부족한) 먹는 물과 생활용수문제를 풀고 국토를 사회주의 맛이 나게 꾸리는 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대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9월 미루벌을 현지지도하면서 과학연구 사업의 강화와 물길공사 및 토지정리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지시했었다.

북한은 미루벌 자연흐름식 관개수로 완공에 앞서 2002년 10월 최초의 자연흐름식 수로인 평안남도 개천-남포 태성호 간 수로(160km)를 준공한 데 이어 2005년 10월 평안북도 백마-철산 수로(280km)를 완공한 바 있다.

FAO "北 식량난 해결위해 유엔기구 도움 받아야"

-- 9월 29일 노컷뉴스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식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단기 해결책 중 하나로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의 곡물 작황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말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문제 담당 경제학자인 키산 건잘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곡물 작황과 식량안정성 조사를 받고 어느 지역의 토지가 생산성이 높고 어떤 종자가 어느 지역에서 잘 자라는 지를 진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잘 박사는 "단기적으로 현재 북한의 식량 위기는 국제 사회의 비료 지원이 전면 중단돼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충제나 생산성 높은 종자도 충분치 못해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유기비료 사용을 늘려 토양을 비옥화 시키고 화학비료 의존도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잘 박사는 "북한에는 올해 약간의 홍수가 있었지만 강우량 등 날씨를 비교적 좋았고, 경작지 규모도 비슷하거나 더 나아졌지만 비료가 부족해 생산량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보고서, 자료 등을 통해 생산량이 높은 종자들을 찾아내어 생산성을 높이고, 경사지 토양 유실로 인한 환경 보전 문제를 막도록 올바른 농지사용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 의존도를 낮추는 영농의 기계화에 관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수확률이 매우 낮은 이모작 때의 작황을 늘리거나 창고보관법이나 도정과정 등 작황 이후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제28차 윤이상음악회 개막

-- 9월 29일 노컷뉴스

제28차 윤이상음악회 개막공연이 28일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9일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열린 공연에는 강능수 문화상과 관계부문 일꾼들,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학생 등과 윤이상 선생의 딸, 평양 주재 독일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공연에서는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과 중앙예술단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공연에 출연해 여성독창 '정일봉에 안개흐르네'로 시작, 윤이상 작곡의 초기 가곡 '편지', 현악합주를 위한 '교향적 음향, 소관현악 '협주적 음향' 등의 곡이 연주됐다고 전했다.

북한, 추수기 앞두고 곡물 가격 오름세

-- 9월 30일 노컷뉴스

추수기를 앞두고 북한의 곡물 가격이 9월 들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30일 "북한지역의 곡물가격이 지난 8월 말부터 서서히 오름세를 보여 함경북도 청진의 경우 쌀값이 6월까지 1,900원대를 유지하다가 7월 들어 2,000원대로 올랐고, 8월 말부터 곡물가격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여 9월 중순 현재, 2,600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옥수수는 700~800원대에서 1,200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온성과 회령의 쌀값은 kg당 2,500원, 옥수수는 900~1,150원 선을 보이고 있으며, 함경남도 함흥에서 쌀은 kg당 2,400원, 옥수수는 1,000~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는 그동안 쌀이 1,600~1,800원, 옥수수가 600~700원 선을 유지했지만, 9월 중순에는 쌀이 kg당 2,200원, 옥수수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식량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해마다 가을 추수 직전에는 주민들이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中-北, 경제~관광까지 포괄적 협약 체결

-- 9월 30일 뉴시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내달 4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방문 중 중국과 북한이 경제와 무역에서부터 교육과 관광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협약을 체결한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원 총리의 방문 기간 동안 양측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동맹 관계 및 다른 공통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 간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장 대변인은 "원 총리의 방문은 양측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의 방문에 대한 보답이다"며 원 총리의 방문 목적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항상 원조를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장 대변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당사국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라고 말하고, 중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교착상태에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49년 10월 6일 중국과 외교동맹 관계를 맺었다.

北, 주요 대형건설장에 군 병력 대거 투입

-- 9월 30일 연합뉴스

북한 평양의 10만가구 살림집 건설 사업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이 29일 쫓겨모임을 갖고 "수도 평양을 웅장화하려는 건설하는 나날에 21세기의 진군속도를 창조"할 것을 다짐했다고 북한의 북한의 평양방송이 30일 전했다.

쫓겨모임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한동근 상장(우리의 중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리태일 상장의 보고와 토론을 거쳐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맹세문이 채택됐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 대전에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양시를 강성대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웅장화하려는 현대적인 도시로, 주체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는 도시로 일떠세우는 데" 군의 힘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해인 2012년까지 살림집 10만가구 건설을 중심으로 평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평양을 강성대국 달성의 상징물로 내세우기 위해 군병력을 이 사업에 대거 투입토록 지시, 지난달 30일 이들 군인력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경제재건 속도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기 위해 평양의 대동강타일공장이나 자강도 희천발전소 등 대형 건설장마다 군인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北, 대북투자 이집트 기업회장에 훈장

-- 9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이 30일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텔레콤 회장에게 '친선

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훈장 수여 이유로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안고 조선과 이집트 사이의 친선과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밝혔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류영섭 체신상 등이 참석했다.

오라스콤은 북한 측과 75대 25%로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통해 지난해 12월15일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위리스 회장은 수여식 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을 전달했다.

북한, 그랜드 바겐 제안 거부

-- 9월 30일 경향신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정부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 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절하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일축했다. 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첫 반응이다.

통신은 이날 '핵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남조선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면서 "우리가 6자 회담을 통해 핵계획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그랜드 바겐'을 해석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랜드 바겐' 제안은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며 "핵문제는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야 진정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北매체, 첨단기술 회사 광고성 기사 내보내

-- 9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북한에서 '정보기술(IT)과 지질탐사 등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앞장선 두뇌집단'으로 '미래기술회사'를 소개했다.

통신은 그동안 "정보기술, 기계기술, 지질탐사 등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연구 개발"해온 이 회사가 소유한 핵심기술과 개발한 주요제품들로 지문인식기, 지능감시체계 프로그램, 천연돌가루에 의한 조선보석화제작기술, 사금 및 유용광물 탐사 및 매장량 평가 등을 들었다.

이런 기술과 제품들은 북한의 여러 경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첨단 기술제품들을 적극 개발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 회사의 구체적인 연혁이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이공계 명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산하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9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3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에 김책공대에서 개발한 '수중날개보트'를 출품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사 관계자는 이 보트에 대해 "속도가 빠르면 서도 선회 반경이 선체 길이(4m)의 1.6배에 불과해 현재 압록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경비정으로 10척이 투입돼 사용되고 있으며, 우간다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현재 3척이 제작 중"이라고 말했었다.

伊 기업, 北 조선컴퓨터센터 등과 제휴

-- 9월 30일 연합뉴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시에 소재한 두 회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연구개발 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KCC) 등과 인력 교류 및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수출 등을 위한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레푸블리카가 30일 보도했다.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정보통신 기술 전문업체인 쿠오타제로(QuotaZero)와 엘레롬(Elerom) 등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북한 KCC 등과의 상호 협력을 추진해 오다 올해 초 계약서에 서명했고, 최근 북한의 IT 기술인력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면서 프로젝트 실행에 들어갔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쿠오타제로의 리카르도 메린골로 사장은 "북한의 기술자 대표단이 최근 이탈리아로 오면서 본격적인 공동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들을 일정기간 교육시킬 예정이며 그 중 4명은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린골로 사장은 또 "2010년 초부터 10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 구성해 2단계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KCC 소속 IT인력과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체인 엘레롬은 KCC와 무역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박람회 개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다른 IT기업 신지와 온라인 교육(e-learning)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합작사업도 동시에 추진중이라고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엘레롬의 베르토네 사장은 북한에서 미래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으며 "북한 IT기업들은 미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자유시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KCC는 북한 IT 개발의 메카로 리눅스 운영체제 분야에 상당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온라인 바둑프로그램 '은별'의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다.

UNDP, "연말 쯤 대북사업 재개"

-- 10월 1일 노컷뉴스

유엔개발계획(UNDP)은 30일 평양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으나, 본격적인 사업은 올 연말쯤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의 스테판 듀자릭 대변인은 "최근 평양의 유엔개발계획 사무소 보수 공사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다"면서 "이는 대북사업의 재개를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일 뿐 아직 대북사업을 재개하지는 않았다"고 3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다.

듀자릭 대변인은 "유엔개발계획이 대북사업의 재개를 위한 절차와 준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듀자릭 대변인은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북한에서 일할 국제 직원의 채용과 사업 재개를 위한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될 올해 말까지는 대북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은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사업을 벌여왔으나, 2007년 1월 북한이 자금을 전용했다는 미국 측의 의혹 제기로 그해 3월 사업을 중단했다.

"북, 지하자원만 팔아도 20년은 버텨"

-- 10월 1일 내일신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1일 '통일한국(a United Korea)?'라는 제목에서 남북한이 통일하면 30~40년 안에 프랑스·독일을 앞지르는 경제규모(GDP)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쟁력으로 70년대 남한처럼 젊은 농촌인력이 있고 인구가 증가하며 막대한 지하자원 매장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2008년 기준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700~2248달러(구매력평가·PPP기준)로 베트남과 인도와 엇비슷하며 중국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왔다. 실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교국가보다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약 4분의 1을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왜곡현상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약 37%)이 농촌에 거주하며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다. 이들을 산업화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70년대 한국이 이룩한 고속성장을 따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인구증가속도도 빠르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향후 10년간 근로가능연령(15~64세) 인구가 평균 0.7%씩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증가속도는 0일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노동자들은 강한 근로윤리를 갖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부존자원이 많다. 마그네사이트, 석탄, 우라늄, 철광괴 등 광물자원은 GDP의 140배에 해당한다(2008년 기준). 채굴비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최소 GDP의 18배 수준. 이론적으로는 광

물자원의 채굴권만 내다팔아도 향후 20년은 북한이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개성공단 함박웃음"...국내외 밀려드는 주문에 "추석 휴무 이들도 아까워"

-- 10월 1일 한국경제

추석을 앞두고 개성공단이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문량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달 1일 공단 통행제한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북한 근로자의 임금 협상 타결로 한때 준폐의 기로에 몰렸던 공단의 위험성과 불투명성이 사실상 제거됐기 때문이다.

1일 개성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기업 대부분은 2일에도 정상조업하고, 추석 당일(3일)과 일요일 이틀만 휴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입주 기업의 70% 이상이 연휴가 시작되는 2일까지는 공장을 돌리기로 결정, 이 같은 사실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내내 휴업하는 일부 입주 기업들은 추석이 끝난 후 일요일 등을 대체근무일로 정해 바이어의 주문납기를 맞출 계획이다.

섬유봉제기업인 나인모드의 옥성식 대표는 "2일까지는 일하고 남측 근로자 사정상 3일 휴업을 결정했지만, 이에 따른 생산 공백으로 늘어난 주문을 어떤 방법으로 제때 맞출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옥 대표는 이어 "섬유봉제업은 추석 전까지 겨울용 의류생산을 마치면 봄·여름 옷을 만들 때까지 통상 한 달여간 비수기를 맞는다"며 "하지만 올해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추석이 끝난 뒤에도 공장을 풀가동시켜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입주 기업들의 추석 인심도 후해졌다. 한 전자부품업체 대표는 "현금을 주는데 제약이 있고, 지나친 선물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북측 근로자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조기 정상화되면서 인력 조달 문제가 입주기업들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후발 입주 기업인 55N66닷컴은 지난 9월 초 건평 1만9834㎡ 규모의 공장을 준공, 2000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현재 파견인원이 93명뿐이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北, 개성공단 업체 실태파악에 적극적

-- 10월 1일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회계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입주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전례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공단 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북한 당국이 업체들의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 도움을 주려는 태도라는 평가와 나중에 임금인상 요구자료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 제기로 반응이 엇갈린다.

특히 북한이 일부 입주업체들에 대해 30개 항목에 이르는 경리회계 자료를 이달 초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1일 "북측에서 인건비, 원부자재, 물류비, 금융비용, 체세율 등 너무 세세한 자료를 요구해 기업들이 영업비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나중에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중에 꼬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떨떠름하고 압박감을 느낀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옥성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일부에서 이번 조사에 대해 기업들의 트집을 잡거나 나중에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치지만 나는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달리 해석했다.

그는 "내가 회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북측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했던 연간 결산 신고서를 항목별로 좀 자세히 풀어달라는 것이지 영업비밀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감가상각' 등 전문 회계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가령 일반 관리비라고 하면 여기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포함한 식대, 교통비 등 여러 계정이 들어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 자료의 자세한 분류를 요청한 것"이라는 것.

그는 북측의 의도에 대한 '선의의 해석'의 근거로,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개발지도총국이 지난달 29일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31개 업체의 법인장을 모아 놓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 사실을 들었다.

총국 관계자 4명은 당일 2시간 내내 법인장들이 제기하는 불만과 애로 사항을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기록해가며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

옥 부회장은 "개성공단 초창기인 2006년에도 비슷한 모임이 있었지만 이번 모임에서 북측 태도가 그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장들은 처음엔 문제제기를 주저했지만 "기탄없이 말해 달라"는 북측의 태도가 진지함을 확인한 뒤 '북측 근로자들의 결근을 줄여달라', '작업시간을 준수해 달라', '불량률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등 요구사항을 쏟아냈다고 그는 전했다.

북측 관리들은 이해가 제대로 안되는 대목은 나중에 다시 물어보기도 하면서 "종래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것과 달리 서비스 마인드로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옥 부회장은 말하고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업체 관계자도 "분위기가 좋았다"며 "북측에서 요구한 회계근거 자료도 기본적으로 기존 결산보고서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작년에 입주해서 그런지 회계자료관련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입주업체 전부가 회계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유성진씨 억류 문제도 풀린 만큼 정부는 공단 합숙소 건설 등 북측과 합의 사항을 이행해 개성공단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성기업 긴급자금지원 안할 가능성 높아

-- 10월 2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6월 남북관계 경색과 북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업들의 지원요청 건에 대한 1차 검토는 끝났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면서도 “통행 및 체류인원을 제한한 북한의 12.1 조치가 해제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됐고 주문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기업들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대략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매우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우리 쪽에서 취한 방북제한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양 등지의 남북경협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 대신 개성공단 내 택아소 건립 착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적 지원은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씨름 대중화 '잔걸음'

-- 10월 2일 연합뉴스

북한이 민족 스포츠인 씨름의 대중화를 통한 인기몰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일 전했다.

북한의 씨름협회 홍환원 서기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 속에서 민족적인 문화정서생활의 기풍을 세우는 데서 씨름의 대중화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정규체육수업에 씨름이 포함됐으며 우리의 과외 동아리격인 소조에도 '씨름소조'가 생겼고 조선체육대학에는 민족체육학부가 생겨 씨름강좌를 신설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각 도와 시, 군에 있는 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 프로씨름선수로 키우고 있다.

프로씨름선수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9월10일상' 무도경기대회와 '정일봉상' 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에 출전하고 있다.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모두 참가하는 경기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대회.

올해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 평안북도 리조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에서도 평안북도팀이 우승했다.

특히 북한 씨름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라이벌 구도.

조선신보는 “사실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는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대결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소개했다.

올해 개인전 우승으로 1t에 달하는 황소를 상품으로 따낸 리조원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만년 2인자에 불과했지만 2006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우승을 거둔 평양시 박춘민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신보는 “씨름경기는 추석을 전후로 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있다”며 “은 나라 인민들이 열중하는 인기 프로그램이고 사람들은 자기 지방을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국경기과 함께 각 지방에서도 민속명절을 맞으며 씨름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씨름은 해마다 진행되는 성,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 농군맹체육경기대회, 직맹체육경기대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종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영변 핵단지 평화적 이용방안 제안"

-- 10월 2일 조선일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하더라도 실험용 원자로는 남겨둬 평화적 연구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방안은 지난해 북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하는 대신 러시아형 실험용 원자로를 그대로 두고, 이를 개조해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겠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조건이면 이런 방안도 북한의 비확산체제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며, 우선 1단계로 북한 핵의 완전 제거보다는 핵 추가개발과 확산을 중단시키고 점진적으로 핵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외에 ▲평화적 목적의 북한의 원자력 이용권 인정 ▲정치적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군사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경제·에너지 지원, 인적 교류 등의 인센티브(유인책)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권은 북한을 비확산체제로 복귀시키는 조건하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미국의 북한주재 연락사무소 설치 및 남북한 및 미·중 4자간 평화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적 측면의 상호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북미 양측의 군 의료·기술진의 교류나 심포지엄 개최 등도 가능하

며, 북한 오케스트라의 미국 공연 등 민간 교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완전한 핵폐기를 하는 비핵화 2단계에서는 북미 양측간에 핵폐기 일시 등의 이정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경수로 제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는 안된다면서 먼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경수로 1기에 해당하는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 정부가 핵은 물론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인권개선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근절 등 5대 분야의 대북 협상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북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기초공사 활발

-- 10월 3일 노컷뉴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대정리와 기초굴착공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3일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 가설 건물공사를 끝낸 수도건설부와 군인건설자들, 성, 중앙기관 등에서 달려온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맑은 건설부지에서 지대정리(토지정리)와 많은 양에 달하는 기초굴착로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위생실 등 살림집 내부가 특색있게 꾸러지게 되며, 난방보장조건도 원만히 갖추어지게 된다"고 소개했다.

"살림집의 건물외부도 특색있게 설계돼 경사식지붕과 조선식지붕으로 다양하게 형성돼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그 주변에는 봉사장과 학교, 공공건물들을 구색이 맞게 건설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없는 새 거리로 일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살림집 건설에는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게 지휘부들이 나왔으며, 수도건설부와 성, 중앙기관 돌격대를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편성돼 건설자재와 운전기계보장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공사를 적극 다그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펴기있게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소식지 1일 'NK in&out' 21호에서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살림집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철거작업에 들어가, 지난 8월10일 쯤 형제산구역의 고산마을 주민들이 집밖으로 쫓겨나 흩길에 천막을 치는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 두고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오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평양

시내 살림집(아파트) 10만 가구 건설을 위해 우선 철거대상 지역으로 형제산구역의 중당동, 하당동, 상당동, 형산리, 학산리, 제산리 일부와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와 원로리, 통일거리와 락랑구역에서 통일탑 뒤쪽과 선교 방향 쪽, 서성구역은 와산동 지역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남북교역 규모 1년간 24% 감소"

-- 10월 3일 조선일보

올 들어 남북간 교역 규모가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말 남북교역실적은 9억2천97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2천430만달러에 비해 24.1% 감소했다.

최근 연도별 남북교역실적은 ▲2005년 10억5천575만달러 ▲2006년 13억4천974만 달러 ▲2007년 17억9천790만달러 등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연간 18억2천37만달러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발표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이후 올해 6월까지 입주기업 89개사에서 총 397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北신문 "남북 간 접촉·협력·교류 활성화해야"

-- 10월 3일 조선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10.4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 사설에서 "북과 남은 선언들에 밝혀진 대로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고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북남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적 단합과 자주통일을 실현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하고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데 대해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10.4남북정상선언은 "6.15공동선의 실천강령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행동 지침"이라며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두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 악화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남조선의 반통일 대결분자들은 '동족의 핵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자주통일 기운과 북남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중반까지와 달리 신문은 남한

정부 당국을 직접 거론해 비난하지는 않았다.

원자바오 오늘 방북...김정일과 회담

-- 10월 4일 조선일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4일 북-중 수교 60주년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 길에 오른다.

원자바오 총리는 오는 6일까지 사흘간의 이번 방북 기간 빠르면 5일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폐기 협상 복귀 여부와 무상원조 제공을 비롯한 북-중간 경제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북한 김영일 총리의 지난 3월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원 총리의 이번 방북은 총리 취임 후 처음이며 중국 정상급 인사로는 지난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년 만이다.

원 총리의 이번 방북은 북-미간 양자대화가 임박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한 뒤 이뤄져 북핵 협상에 중대 돌파구가 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 측으로부터 6자회담 진전에 대한 확약을 받지 않았으면 이번에 방북 길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란 추론을 바탕으로 한 낙관론과 "6자회담은 끝났다"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원 총리의 방북에 대한 예우로 다자회담이 6자회담 재개 또는 다른 틀의 회담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지난달 말 방북한 존 루이스 스텐퍼드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 그룹에 6자 회담은 "완전히 끝났다(over and done)"며 6자회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일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 이외의 다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圭<王+鬼>)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이고, 미국의 정책이 6자회담 재개의 결정적 요소"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할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북하면서 북한에 상당 규모의 무상원조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과 석유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원 총리의 방북 기간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장 대변인은 "무상원조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원 총리 방북 기간 북한과 경제무역, 교육, 여행 분야 등의 협정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베이징에 파견, 중국 측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한 데 이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결과와 오는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상당 규모의 무상원조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과 석유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원 총리의 방북 기간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장 대변인은 "무상원조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원 총리 방북 기간 북한과 경제무역, 교육, 여행 분야 등의 협정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신문 "이산상봉 성과 살려 화해국면 이어가야"

-- 10월 4일 중앙일보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9.26-10.1) 행사가 열린 것을 "화해, 협력의 성과"로 평가하며 남북이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의 성과를 살려서 북남관계를 더욱 활기있게 전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3일자 '화해와 협력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과 남은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협력의 국면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4일 전했다.

신문은 남북관계가 "지난 1년반 동안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만을 걸어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이산가족 추석상봉 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풀어줬다면, "단절되었던 북남관계가 다시 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고 금강산에서의 뜻깊은 가족, 친척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 위원장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낳은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민족문제, 통일문제보다 더 중한 것은 없으며 민족 공동의 이익, 통일적 발전보다 특정한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더 앞세울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추석상봉 역시 6.15선언의 한 조항에 밝혀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 시기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서로 적대시하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상태에서는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국결과 좌절을 딛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며 "이것은 민족을 위해 다시 찾아온 소중한 기회"라고 주장한 뒤 "북과 남은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공동의 발전과 번영,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中, 경제원조 교환문서 등 조인

-- 10월 4일 연합뉴스

북한과 중국 정부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다양한 협정과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에 조인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조인된 합의문엔 '경제원 교환문서'외에 '조약정리의 의정서', '경제기술협조협정', '교육기관간 교류협조 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국가품질감독기관 사이의 수출입품 공동검사 의정서',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 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야생동물보호협조 강화 합의서' 등이 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이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김영일 총리와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박경선 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와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장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 상무부장, 차이우 문화부장, 세푸잔 국무원 연구실 주임, 추샤오슝 총리실 주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류전치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 서명은 북측에서 박 외무상과 김영진 교육상, 한우철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장, 박성국 국가품질감독국장, 강철수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리성옥 국가과학원 부원장 등이, 중국측에서 양 외교부장, 천 상무부장, 류샤오밍 주북 중국대사, 왕영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장, 왕즈과 국가여유국 부국장이 각각 해당문건들에 했다.

France announces special North Korea mission 프랑스 북한 특사 임명

-- 10월 2일 Taiwan News

출처:http://www.etaiwannews.com/etn/news_content.php?id=1071908&lang=eng_news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is assigning an envoy to a special North Korea mission to evaluate ways France can help end the standoff over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A statement from Sarkozy's office Thursday said envoy Jack Lang will analyze under what

circumstances France might establish relations with Nor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progress on the nuclear question, on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situation."

Neither Sarkozy's office nor Lang's would confirm whether Lang was going to visit North Korea, which would be an unusual foray for a French envoy.

Lang was a longtime Socialist government minister. He went to Cuba in March on a similar mission ordered by Sarkozy.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대북특사를 임명했다.

사르코지 비서실에서 목요일 밝혀진 바로 자크 랑은 프랑스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를 검토하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남한과의 관계, 인권문제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랑특사가 북한을 방문할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랑특사는 오랜시간동안 사회당 출신의 특사였으며, 사르코지의 임명 하에 지난 3월 쿠바에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녀왔다.

Chinese Premier Greeted by Kim Jong-il at Airport in Pyongyang 김정일 중국 총리 평양 방문 공항 영접

-- 10월 4일 The Korea Times

출처: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10/113_52866.html

Chinese Premier Wen Jiabao was greeted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when he arrived in Pyongyang, in a trip expected to focus on reviving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Kim received the Chinese premier at the Sunan Airport in the North Korean capital, Yonhap News said. Wen is the highest-ranking figure to visit the allied neighbor since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raveled there in 2005.

Wen's three-day visit is officially aimed at attending celebrations in Pyongyang for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es' diplomatic relations, but it is widely viewed as focused on diplomacy for reviving the stalled disarmament talks and China's expected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The disarmament forum also involve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North Korea quit the talks in April in protest of U.N. criticism over its long-range rocket launch, which was widely viewed by Western powers as a test of it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sponding to subsequent U.N. sanctions, Pyongyang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test in May.

North Korea shifted to conciliatory diplomacy in August, inviting Stephen Bosworth,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in an attempt to make a breakthrough with bilateral talks.

Last month, the North Korean leader said he was open to either "bilateral or multilateral talks," hinting the country may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He made the remarks to a visiting Chinese presidential envoy, Dai Bingguo.

Washington is expected to announce a trip to Pyongyang by Bosworth after Wen's visit.

North Korea, meanwhile, hailed Wen's visit with an editorial in the Rodong Sinmun, the newspaper of the Workers' Party, stressing the visit "clearly illustrates that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of China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port was carried by the state-run radio, the Korean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Wen's trip will "open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friendship" and be "a great encouragement to the Korean people" who are striving to build a prosperous nation, the paper added.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력을 위한 회담을 목적으로 평양에 방문한 Wen자바오를 최고의 예우로 환영했다.

김정일은 중국 총리를 북한의 수도에 있는 순안 공항에서 영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Wen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문이후 고위급인사급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Wen의 3일간 방문일정은 공식적으로는 양국 수교 60주년 행사를 참여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과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등을 토론했기 위함이다.

북한은 지난 8월 미국의 북한정책 대표 스테판 보스워스를 초대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간의 대화를 한바 있다.

지난 달, 양국간 또는 다자간 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6자회담에 돌아올 가능성을 북한지도자는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의 대통령 임명 특사 다이빙궈의 방문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Wen의 방문 이후 보스워스의 방문을 기대하는 것으로 워싱턴에 전하려 한 것

으로 보인다.

노동당 신문인 노동신문 사설에 당과 중국 정부 양국간의 수교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Wen의 방문을 크게 맞이한다고 실었다. 리포트는 전국 라디오에 방송되었다.

Wen의 방문은 양국 협정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며,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중대한 격려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北朝鮮＞「拘束されぬ」…「核兵器なき世界」国連決議批判 ＜북한＞「구속되지 않다」…「핵무기 없는 세계」유엔 결의 비판

-- 9월 30일 마이니치신문

北朝鮮外務省報道官は30日、国連安保理の首脳会合で採択された「核兵器のない世界」実現を目指す決議について「国際社会の念願と意思が十分に反映されていない二重基準的な文書」と批判したうえ「全面排撃し、少しも拘束されない」と表明した。朝鮮中央通信の質問に答えた。

報道官は「非核国家に対する米国の核の脅威と、それにより各地域で平和と安定が甚だしく蹂躪（じゅうりん）、破壊されている現実が問題視されるべきだ」と強調。「核兵器を最も多く保有している国から削減し、撤廃することが世界の非核化のための先決条件だ」と訴えた。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의 질문에 답하며, 유엔 안보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결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염원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중기준의 문서'라고 비판한 뒤 '전면 배격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표명했다.

보도관은 '비핵국가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과 그로 인해 각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심하게 유린,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부터 삭감, 철폐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호소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상류층 입맛 사로잡은 '한국 커피믹스'

○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믹스'가 북한에서도 간부와 부유층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에서 '커피믹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단둥에는 커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역업자들도 늘어나, 인천항에서 1주일에 3번 정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중국이 한국 커피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 단둥을 오가는 파이공(帶工), 즉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면, 무역상들은 커피 걸포장을 뜯고 다른 용기에 넣어 음성적으로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밀수를 통해서도 한국 커피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의 큰 도시와 장마당에서 북한 상류층에 몰래 팔리고 있다고 북한 무역업자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북한에서 '커피믹스'는 남북교류가 시작되면서 남한 사람들이 가져간 '커피믹스'를 북측 안내원들이나 접대원들과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서 알려지기 시작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을 통해 일반 주민들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논문

남북 경협을 단기 현안 해결 방안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하반기 들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과 역류 역기자 석방에 이어,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하였다. 또한, 지난 9월의 다이빙귀 중국 특사와의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대화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 위원장과의 면담과 5개항 합의, 북한의 조문단 파견과 청와대 면담, 개성공단 근로자 석방과 육로통행 제한 철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300달러 요구 철회(5%인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화 재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뚜렷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긍정적 남북 대화 분위기를 활용하여 남북 관계와 경협 활성화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방향으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과 함께, 인도적 사안 및 단기 현안 과제에 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동반자로서의 진정성을 상호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하여 회담 내에서 협력 방안과 해결책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협의 법·제도화는 물론,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 인프라 지원 등 지속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이행을 요구하는 6.15 및 10.4 선언과 우리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접목시키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먼저 중단된 남북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지금은 종전의 상황과 달리, 우리 정부

가 요구했던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 합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 명시가 요구된다. 또한, 개성관광은 중단 이유였던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가 철회되었으므로 재개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백두산 관광은 삼지연 공항의 개보수와 기술 협력 및 항공협정 체결 등을 위한 관광 사업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기합의 사항의 존중과 정책의 연속성 측면은 물론, 중국의 장백항 공항 개항과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등과 같은 동북공정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토지가 결합된, 남북 간의 대표적인 상생·공영의 경협 실험장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유일한 대화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9월 현재 1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현행 개성공단 사업에는 몇 가지 현안 과제가 있다. 2단계 사업 착공은 차치하고라도, 1단계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북측이 제기한 기존 계약 무효화 선언의 종결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 3통(통행, 통관, 통신)과 노무관리의 안정성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 반출 허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상기의 경협 현안 외에도 상호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인도적·비이념적 분야의 포괄적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황강 댐 참사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남북한 점경관리위원회'(가칭) 등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할만하다.

(이 글의 원문은 <http://hri.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퀴즈로 풀어가는 北!

2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이 민족스포츠인 씨름의 대중화를 통한 인기몰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정규 체육수업에 씨름이 포함됐으며 각 도와 시, 군에 있는 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 프로씨름선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프로씨름선수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9월10일상' 무도경기대회와 '정일봉상' 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모두 출전하는 대회는 이 대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 올해 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을 평안북도가, 개인전 역시 평안북도의 리조원 선수가 했습니다. 특히, 리조원 선수는 우승 부상으로 1t에 달하는 황소를 받았는데, 이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 59호, 이 주의 주요기사 중 10월 2일자 기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를 purple0414@krlove.net 으로 10월 11일 일요일 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세계 최초로 ISO 22000 국제인증 받은 『신일염전』에서 생산한 명품소금, 『513 천일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겨레사랑 홈페이지 www.krlove.net 에서 팝업창을 확인해 주세요.